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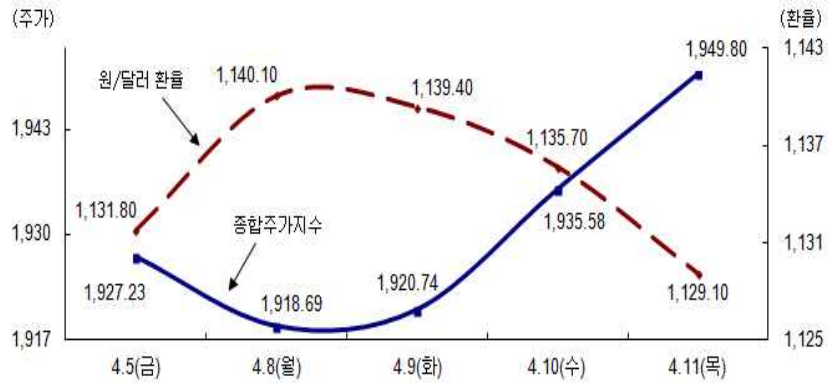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창조형 창업이 없다!
-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5~4.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창조형 창업이 없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창조형 창업이 없다! -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 최근 창업의 중요성 재부각

창업 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특히,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에 국내 창업 현황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활동, 창업 구조 및 창업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먼저, 창업 활동 측면에서 보면 첫째, 국내 창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고, GEM의 초기 창업활동 비율도 2001년 12.3%에서 2012년 7.0%로 떨어졌다. 둘째, 창업 이후 평균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하며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 신규 사업자들의 평균 17.3%는 1년 미만, 41.3%는 1~3년 미만에 폐업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개인 사업자의 창·폐업이 활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생존기간은 더 짧았다. 셋째, 1인 생계형 창업 중심이다. 창업 기업의 90% 이상이 상용근로자 없이 고용주 1인 형태로 영세하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89.6%는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데 생계형 산업의 비중이 높다.

창업 구조 측면에서는, 넷째,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창조형 창업)이 저조하다.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도 한국은 16.7%(2011년)로 미국 34.4%(2007년), 독일 30.6%(2010년)에 비해 크게 낮다. 한편, 제조업 창업도 약 50%는 저기술 부문에 몰려 있고 첨단 및 고기술 제조업에서 창업은 특히 부진했다. 다섯째, 국내 주력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창업도 저조하다.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 장비 산업이 차지하는 창업 비중은 1% 미만으로 낮다. 이들 산업의 기업 신생률도 전산업 평균대비 저조하여 창업을 통한 혁신 제고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창업 환경 측면에서도 여섯째, 열악한 창업 지원이 창업 의지를 낮춘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창업 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 혁신적인 창업가 등장에 장애가 된다. 또한, 소득대비 높은 창업비용, 낮은 지식 이전 수준 등도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금융도 부족하다. 국내 벤처 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0.030%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국내 벤처 캐피탈 접근성(세계 39위)과 기술개발펀드 활성화(세계 33위) 등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발달도 뒤쳐져 있다.

□ 시사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력 제고,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국내 창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 멘토링' 서비스가 요구된다.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형 창업 펀드 활성화를 통해 지식 기반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창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국내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폐업 이전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정직한 실패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윈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창조형 창업이 없다! -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

최근 창업의 중요성 재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창조경제 구현에 중요한 창업: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 · 국내 창업 현황은 창업 활동, 창업 구조 및 창업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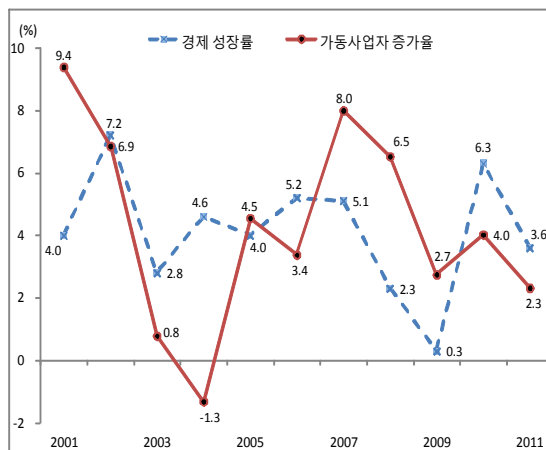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창업 활동	창업 활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의 신생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 · 기업 신생률도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낮아졌고, 폐업자가 증가하면서 신생-소멸률 간 격차가 줄어들 · GEM의 창업활동 비율도 2001년 12.3%에서 2012년 7.0%으로 하락
	짧은 생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이후 평균 58.6%는 3년 미만에 폐업하여 사업 안정성이 낮음 · 특히, 서비스업 중 개인 사업자의 창·폐업이 활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생존기간이 더 짧았음
	1인 생계형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1인의 생계형 개인 창업자가 대부분 · 국내 신규 사업자의 90% 이상이 고용주만 있는 1인 구조 · 특히, 개인 신규 사업자의 90%는 서비스업에 집중
창업 구조	창조형 창업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실현하는 지식 산업의 창업 비중이 15%에 불과 · 이에 한국의 총사업체 중 지식산업 비중은 16.7%로 미국 34.4%, 독일 30.6%보다 크게 낮음 - 제조업 창업의 약 50%도 저기술 분야에 몰려 있음
	주력산업 창업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력 산업의 저조한 창업은 혁신 제고와 신산업 발전을 저해 ·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화학, 수송장비 등의 창업 비중은 전산업 대비 1% 이하로 매우 저조
창업 환경	열악한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 대비 낮고, 창업비용은 높아 창업가의 열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소득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미국 1.4%, 일본 7.5%보다 높음
	창업 금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형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금융의 규모가 작고 접근성도 낮음 · 국내 벤처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GDP의 0.030%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에 비해 작음 · 한국의 벤처 캐피탈 접근성도 세계 39위로 경쟁력이 낮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교육 확대로 창업 활력을 높여나가야 함 - 둘째,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 셋째, 창조형 창업 펀드 활성화 등으로 지식산업에서의 창업 지원을 강화 - 넷째,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창업 코디네이터를 활성화 - 다섯째, 폐업 이전 사전 신고제 도입 등으로 정직한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마지막으로,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 구축으로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

1. 최근 창업의 중요성 재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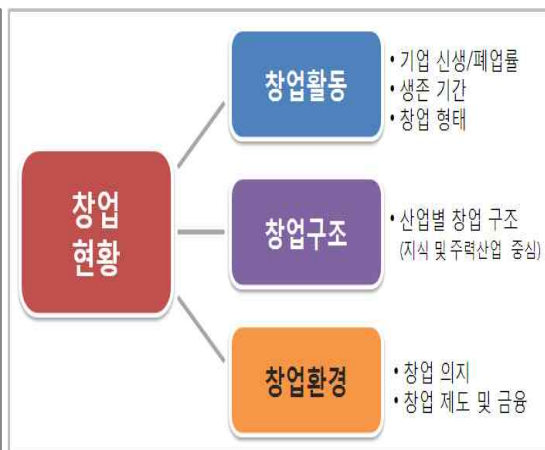
- 창업은 신규 일자리 증대와 신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창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창업 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고용창출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는 36개국 분석을 통해 창업이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Reynolds(1999) 등 다수의 학자들도 창업이 지역고용을 증대시킨다고 실증 분석함
 - 국내 사업체 수 증가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동 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
-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 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만큼 국내 창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
 - (창조경제 구현에 중요한 창업) 국내 창업 현황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활동, 창업 구조 및 창업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함
 - 국내 창업 현황은 GEM의 분석틀¹⁾을 활용하여 창업 활력 등을 보는 창업 활동, 산업별 창업 구조, 창업자의 태도, 제도 등을 살펴보는 창업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
 - 특히, 창업 구조는 창의성과 기술개발 등이 중요한 지식 산업과 주력 산업에서 살펴봄

<경제성장률과 가동사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주: 가동사업자는 국세통계의 연도말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임

<국내 창업 현황 분석>



자료: 저자 정리.
 주: GEM의 창업 현황 분석틀을 활용하여 재구조화함.

1) GEM은 창업 현황을 창업태도(창업기회 인식, 실패 두려움,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창업 활동(창업 비율, 창업형태, 주요 창업 산업 등) 및 창업 열망(혁신, 해외시장 지향성, 사회적 가치 창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

2.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1) 창업활동

○ (창업 활력 저하) 국내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하락하고 창업 활력도 선진국 대비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국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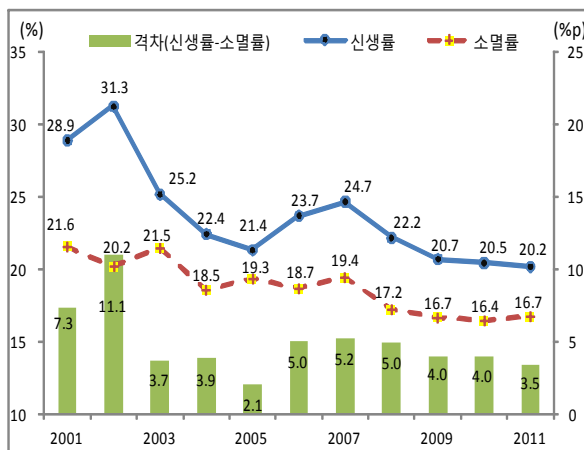
- 가동사업자²⁾ 대비 신규 사업자로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고 소멸률도 동기간 21.6%에서 16.7%로 낮아짐³⁾
- 국내 신규사업자(사업자 등록 기준)는 2002년 123.9만개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7년 이후로는 100만개 수준을 유지. 폐업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89.7만개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생률과 소멸률간 격차도 2007년 이후 꾸준히 축소

- 국내 창업활동은 선진국대비로도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

- GEM에 따르면, 한국의 초기 창업활동 비율*은 2001년 12.3%에서 2012년 7.0%로 하락한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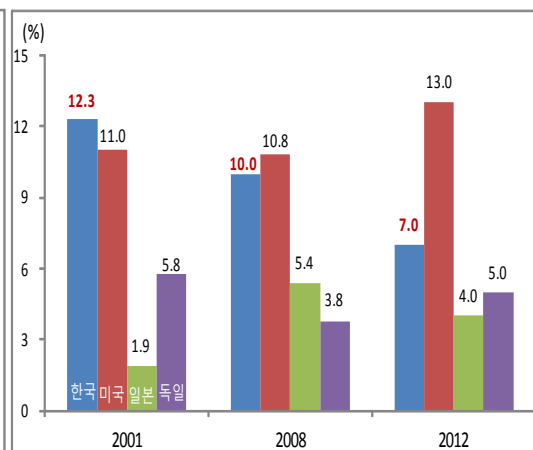
* 초기 창업활동 비율(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은 18~64세 인구 중 현재 사업을 시작했거나 42개월 이하로 경영 하고 있는 경우임.

<기업의 신생·소멸률 추이>



자료: '국세통계'를 이용 자체 계산
 주: 신생률=(각년도 신생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소멸률=(각년도 소멸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주요국 초기 창업활동(TEA) 추이>



자료: GEM.
 주: 한국은 2003~07년까지 조사되지 않았음.

- 2) 국내 창업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보다 폭넓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가동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이며, 신규사업자(창업)는 당해연도 신규 등록된 사업자 수입.
- 3)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2012.12)는 비영리 기업을 제외한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 매출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이후의 신생률과 소멸률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1년 15.3%로 2.6%p 낮아졌고, 소멸률도 동기간 13.4%에서 12.6%로 0.8%p 하락함.

○ (짧은 생존 기간) 신규 사업자의 생존 기간은 3년 미만이 평균 58.6%에 달하는데⁴⁾ 개인 사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생존기간은 더 짧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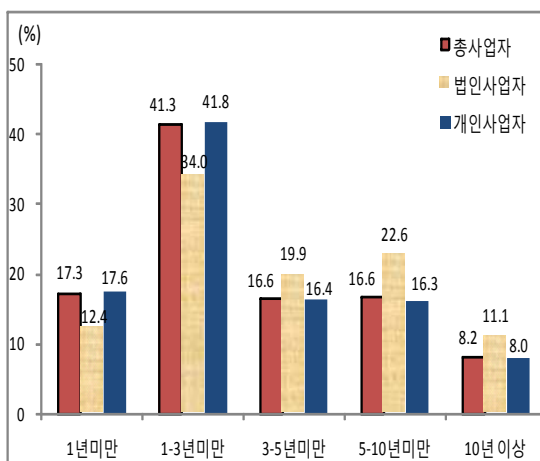
- 신규 사업자들 중 평균 17.3%는 1년 미만, 41.3%는 창업 이후 1~3년 미만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제 통계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폐업한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들의 58.6%는 평균 3년 미만에 폐업했고,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8.2%에 불과했음
- 조직 형태별로는 법인의 3년 미만 폐업 비중이 46.4%로 개인 사업자의 59.4% 보다 13.0%p 낮았음

-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생존기간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짧았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비율이 높았음

- 창업 기업 중 생존 기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평균 3년 미만 생존 비율이 57.8%에 달했고, 10년 이상은 8.6%에 불과했음
-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존 기간이 짧은 업종은 개인 사업자의 창·폐업이 활발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이들의 3년 미만 생존 비율은 각각 62.3%, 64%로 전체 서비스업 대비 높아 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창업 기업의 생존 기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주: 2007~2011년까지 폐업 신고자의 평균임.

<산업별 창업 기업의 생존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농림어업	10.1	26.4	15.6	21.6	26.4
제조업	14.0	32.7	17.3	19.4	16.6
건설업	13.7	39.2	18.8	17.4	11.0
서비스업	16.3	41.5	17.5	16.1	8.6
도소매	19.5	42.8	15.5	13.5	8.8
음식숙박	14.6	49.4	17.1	13.9	4.9
부동산	10.3	19.9	24.2	28.7	16.8
합계	17.3	41.3	16.6	16.6	8.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주: 2011년까지 업종별 폐업 신고자 기준임.

4) EU의 기업 생존율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사업체 조사 기준)의 생존율은 3년까지는 65% 이상이며 5년은 약 50%로 조사되어 국내 신규 사업자(국세통계 기준)의 3년 미만 41.4%, 5년 미만 24.8%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음.

○ (1인 생계형⁵⁾ 중심) 신규 사업자의 대부분은 고용인 없이 고용주 1인의 형태로 영세하며 서비스업에 90%가 몰려 있음

- 국내 신규 사업자의 90% 이상이 상용근로자 없이 고용주만 있는 1인 구조임
 - 통계청이 조사한 신생 기업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신생 기업의 90% 이상이 고용주만 있는 1인 기업이며, 10인 이상 기업은 1% 초반 대에 불과하여 창업의 대부분은 생계형 자영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됨
 - 한편, 2011년 기준 폐업 기업의 94%도 고용주 없는 1인 기업이었고, 종사자 10인 이상은 0.9%에 불과했음
- 개인 신규 사업자의 약 90%는 서비스업에서 창업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신규 사업자를 보면, 서비스업에 약 88%가 몰려있고, 제조업 5.9%, 건설업 5.5% 순임
 - 조직 형태별로는 법인 사업자의 19.2%는 제조업, 68.3%는 서비스업에서 창업하고 있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서비스업에서 89.4%가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중 법인은 도·소매업 28.2%(전산업의 창업자 기준), 사업서비스업 15.5%로 창업 활동이 활발했고,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업 29.8%, 음식·숙박업 19.6%, 부동산업 14.3% 등으로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았음

<종사자 규모별 창업 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	92.4	91.3	91.4	91.3	90.8
2~4인	4.4	5.0	5.1	5.2	5.6
5~9인	2.1	2.3	2.2	2.2	2.3
10~49인	1.0	1.2	1.1	1.2	1.2
50~99인	0.1	0.1	0.1	0.1	0.1
100인 이상	0.0	0.1	0.0	0.0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생성·소멸) 행정통계' 개발 결과(2012년 12월).

<산업별 창업 비중(% 추이)>

	총사업자	법인	
		법인	개인
농림어/광업	0.7	2.7	0.6
제조업	5.9	19.2	4.8
건설업	5.5	9.3	5.2
전기수도가스	0.1	0.4	0.1
서비스업	87.7	68.3	89.4
도소매	29.7	28.2	29.8
음식숙박	18.4	3.5	19.6
부동산	13.8	8.0	14.3
사업서비스	5.4	15.5	4.5
기타	0.1	0.1	0.0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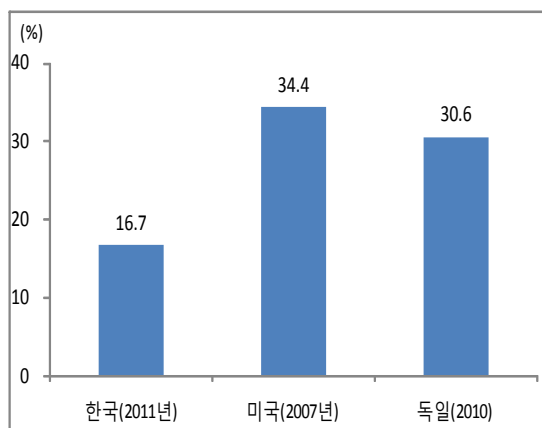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 자체 계산.
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별 평균 신규 사업자의 비중임.

5) GEM은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을 초기 창업자들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한국은행은 생계형 서비스 산업을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 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함.

2) 창업구조

-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저조)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실현되는 지식 산업의 창업 비중이 15%에 불과하고, 제조업 창업의 약 50%도 저기술 분야에 집중
-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⁶⁾의 비중은 15.4%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낮은 편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신규 사업자를 보면,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4%로 낮고, 신생률도 2008년 22.6%에서 2011년 20.6%로 2%p 떨어짐
 - 이에 따라, 전국 사업체 중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기준 16.7%로 미국 34.4%(2007년 기준), 독일 30.6%(2010년 기준) 보다 크게 낮은 편임
- 지식 산업 중 법인은 IT·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 분야에, 개인 사업자는 교육, 오락·문화 산업에서 창업이 활발
 - 지식 산업에서 창업은 법인 사업자가 27.8%로 개인 사업자의 14.4% 보다 높음
 - 지식 산업 중, 법인 기업은 IT·연구개발, 법무·건축·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개인 사업자는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창업이 활발
- 한편, 제조업 창업의 약 50%는 저기술 분야에 몰려 있고, 첨단기술 및 고기술 분야에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이 특히 부진함
 - 제조업의 기술수준별⁷⁾ 창업 비중을 보면, 첨단기술 13.5%, 고기술 18.6%, 중기술 20.3%, 저기술 47.6%로 저기술 제조업에 몰려 있음. 특히, 첨단기술 및 고기술 제조업 분야의 개인 창업은 법인대비 상당히 저조함

<주요국 총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 >



자료: 통계청, Eustats, 미국 BDS.
 주: 1) 지식 산업은 OECD 기준을 적용.
 2) 각 국가별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창업 비중 >

	총사업자 (%)	
	법인	개인
첨단기술	13.5	10.9
고기술	23.2	17.1
중기술	25.1	18.7
저기술	30.5	53.3
합계	100.0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 자체 계산.
 주: 2008~2011년까지 산업별 신규 사업자의 평균이며, 기업경영분석 기준을 적용.

6) 지식집약 산업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ICT,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 교육업 등이 포함, <첨부 3. 산업분류 기준> 참조
 7) <첨부 3. 산업분류기준>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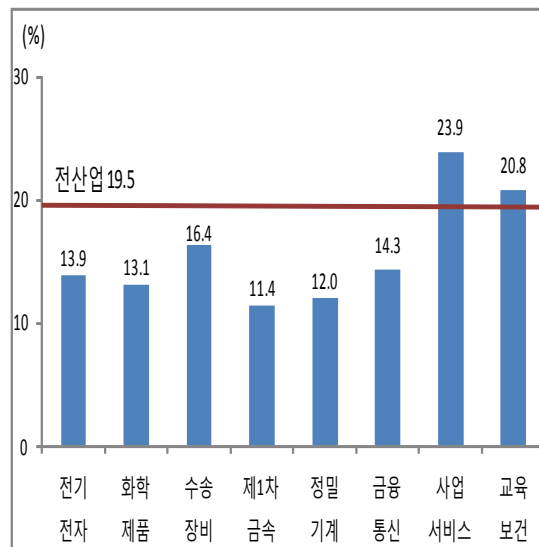
○ (주력 산업의 창업도 저조)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에서의 저조한 창업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전 등을 저해

-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의 창업이 저조한데, 이는 관련 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별 국내 산출액의 비중은 제조업이 47.7%, 서비스업이 39.3%를 차지.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9.7%, 화학제품 6.8%, 수송 장비 6.6% 순으로 높음
 - 하지만, 국내 산출액 비중이 큰 산업의 창업 비중은 1% 이하로 매우 저조한데, 산출액 100억원 당 전산업의 평균 창업수는 3.9개이나 전기·전자 0.3개, 화학제품 0.1개, 수송 장비도 0.2개로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창업은 매우 낮았음
 - 반면, 서비스업은 산출액 비중 대비 창업이 제조업보다는 높았음
- 국내 주력산업의 기업 신생률도 전산업 평균대비 낮아 관련 신산업 발전을 저해
 - 2008년부터 2011년의 전산업 평균 신생률은 19.5%였으나,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업종의 신생률은 13.9%, 화학제품 13.1%, 제1차 금속제품 11.4% 등으로 평균(19.5%) 대비 크게 낮았음
 - 다만, 고부가 서비스업인 사업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의 기업 신생률은 평균대비 높았음

<주요 산업의 산출액 및 창업 비중>

산업	산출액 비중(%)	창업 비중(%)
제조업	47.7	5.9
전기·전자	9.7	0.8
화학제품	6.8	0.2
수송장비	6.6	0.3
제1차 금속	6.4	0.1
서비스업	39.3	87.7
도소매	4.9	29.7
금융통신	6.6	1.0
부동산	4.3	13.8
사업서비스	5.0	5.4
교육 보건	6.1	3.7
전산업	100.0	100.0

<국내 주력산업의 기업 신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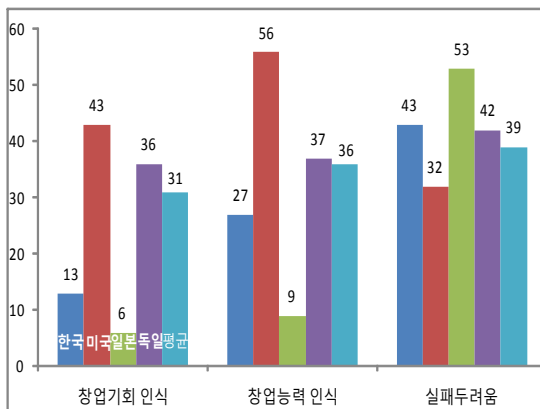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 주: 1) 산출액은 2009년 산업연관분석 연장표, 창업수는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2) 산출액과 창업 비중은 전산업 대비며 산업별 창업 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자료임.
- 3) 산업별 신생률=(해당 산업의 신생기업)/(해당 산업의 가동기업)*100

3) 창업환경

- (열악한 창업 지원) 우리 국민들의 창업 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창업비용은 높아 창업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창업 기회와 능력에 대한 인식은 주요국 대비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등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GEM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창업 기회와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각각 13과 27로 미국의 43과 56에 비해 크게 낮았고, 혁신주도형 국가⁸⁾의 평균인 31과 36에 비해서도 낮았음
 - 창업 고려시, 한국의 실패 두려움도 43으로 혁신주도형 국가 평균인 39보다 높았음
 - 창업 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소득대비 창업비용이 높고, 지식 이전 수준 등도 낮아 창업가의 열망을 낮추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내 창업 환경은 창업까지의 소요절차 및 소요시간 등이 간소화되어 있으나 소득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미국 1.4%, 일본 7.5%, 독일 4.9%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IMD가 평가한 국내 창업 수월성도 48위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매우 낮았음. 특히 창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수준도 25위로 미국 3위, 독일 5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
- * 세계은행의 소득대비 창업비용은 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으로 'StartBiz'를 통한 신규 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

<주요국 창업태도 비교>



자료: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주: 2012년 기준임.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세계은행	소득대비 창업비용(%)	14.6	1.4	7.5	4.9
	창업까지 소요절차(개)	5	6	8	9
	창업까지 소요시간(일)	7	6	23	15
IMD	창업수월성	48위	19위	34위	30위
	지식이전 용이성	25위	3위	27위	5위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3',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2'

8) GEM은 창업활동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23개국은 혁신주도형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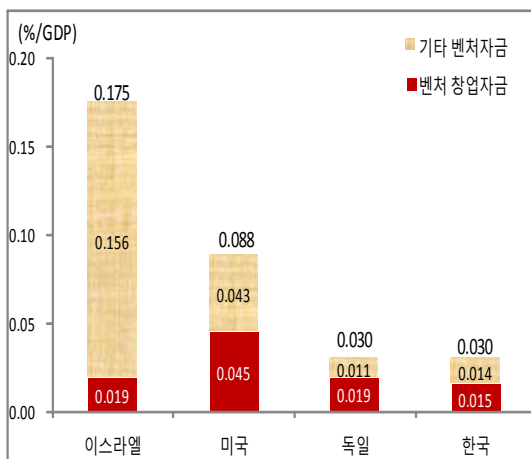
○ (창업 금융도 부족) 금융시장에 조달 할 수 있는 창업 금융의 규모가 작고 접근성도 낮음

- 창조형 창업⁹⁾을 지원하는 국내 벤처 캐피탈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작음
 - 국내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규모는 2012년 기준 1.2조원 규모임. OECD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GDP의 0.030% 수준으로 창업 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GDP 대비 0.175%, 미국 0.088%에 비해 크게 낮음
 - 특히, 국내 벤처캐피탈은 창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업력이 4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70%에 달해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함
 -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자료(2008년)에 따르면, 벤처 창업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초기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벤처기업의 높은 실패율', '내수경기 침체' 등 순으로 꼽혔음

- 벤처 캐피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기술개발 펀드 활성화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음

- IMD에 따르면, 국내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39위로 미국 3위, 이스라엘 5위과 같이 벤처 산업이 잘 발달된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낮았음
- 또한, 국내 기술개발펀드의 활성화 정도도 33위로 평가받고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 창업기회 및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주요국 벤처 캐피탈 규모 비교>



자료:OECD.
주:2009년 기준임.

<벤처 캐피탈 접근성 및 기술개발펀드>

	벤처캐피탈 접근성	기술개발펀드 활성화
미국	3위(6.77)	3위(7.23)
일본	42위(3.83)	21위(6.11)
독일	16위(5.37)	12위(6.6)
이스라엘	5위(6.48)	5위(7.12)
한국	39위(4.14)	33위(5.01)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2'.
주: 각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9) 창조형 창업은 창의성, 지식, 기술개발을 보유한 경우로 GEM의 개선형 기회추구 창업활동과 유사함.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독립성과 더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경우하기 위해 창업함.

3. 시사점

- 국내 창업은 활력이 저하되고 생계형 중심이며 창업 환경의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창업 활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며 창업 환경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1) 국내 창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첫째,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확대 등으로 창업 활력을 높여나가야 함
 -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는 창업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성공한 창업가들이 사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굴
 - 또한, 초·중등교육 과정부터 창업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¹⁰⁾하고, ‘기업 공개의 날(Company open days)’ 등 정기적인 행사로 학생들과 창업가들의 교류를 확대
- 둘째,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이 40% 초반으로 매우 낮은 만큼 창업 기업에 관리경영, R&D 코칭, 타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높여나가야 함

2) 창의성과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셋째, 창조형 창업 펀드의 활성화,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식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에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지원 자금을 생계형과 창조형으로 이원화하고, 생계형은 사업자금 지원과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출 방식으로, 창조형은 창업 펀드, 클라우드펀딩* 등 투자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 한편, 창업과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에도 담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 또한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지식 재산권 유동화를 위한 세일 앤 라이선스 백(Sale & License Back)** 방식의

10) 유럽 연합은 2015년까지 ‘창업가 교육’ 과정을 초등교육과정부터 성인교육까지 반영하여 창업 교육을 확대할 예정

지식재산권 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확대 등이 빠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임

* 크라우드펀딩은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창업에 투자하는 형태임.

** 세일 앤 라이선스 백은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

- 넷째, 창조형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성공한 창업가'의 경험을 활용한 창업 코디네이터를 활성화

· 우선, 국내의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

· 특히 산·학·연 네트워크를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창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학계 및 연구계 각각의 필요에 따른 파트너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창업 코디네이터(Start-up coordinator)'를 활성화

3) 국내 창업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다섯째, 폐업 이전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폐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재창업 교육 과정을 보다 다양화하고 '정직한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폐업 이전에 사전 신고제를 통한 사업 컨설팅으로 재생 가능성을 높이고, 폐업자를 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 과정도 사전에 알선해 줌으로써 경제 활동의 이탈을 방지

· 아울러, '두번째 창업'이 더 성공하고 오래 존속할 수 있는 연구 결과¹¹⁾들이 많은 만큼 정직한 실패자들이 재기할 수 환경을 조성

-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에서 사업 시작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성도 제고

· 특히, 지식 집약적 창조형 창업의 경우 자격 취득, 행정절차, 금융지원 등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액티바(Barcelona Activa)를 통해 바르셀로나 지역의 창업가들에게 트레이닝, 창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창업 코칭 서비스를 제공

기업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11) E.stan, D.b. Audretsch and J. Meijard, "Renascent Entrepreneurship", Erasmus Research Institute of Management, 2006

<첨부 1. 주요국의 창업 지원 정책 동향>

-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창조형 창업'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국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활동의 증대와 유지를 위해 창조형 창업을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 GEM에 따르면, 미국, 일본의 생계형 창업은 21%로 한국의 35%보다 크게 낮음
 - 최근 주요국의 창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과 컨설팅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금융·기술개발 등 파트너십 연계 및 대기업과 성공한 창업자들이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
 - 미국: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창업 활동 및 창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한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발표
 - 일본: 장기간 경기 침체 등으로 창업 활동은 저조한 편이나 최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벤처캐피탈이 증가세를 보임
 - 독일: 2010년 독일에서 창업 문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독일 기업가 정신' 이니셔티브를 발표. 상공회의소, 수공업 협회 및 자유직업 연맹이 연계하여 창업자에게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

<주요국의 주요 창업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미국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프로그램(2005): 엔젤투자자를 포함, 성공한 기술 창업자들이 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 -린 스타트업(2009): 상품개발단계부터 고객과의 피드백을 통해 창업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 창업가,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경영 지원을 대기업들이 적절하게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
일본	-간접 벤처캐피탈 제도: 정부가 광역 자치체의 재단을 경유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에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벤처기업을 지원 -비즈니스 매칭 스테이션: 온라인 형태로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매칭을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인재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
독일	-넥스트 체인지 이니셔티브(2006): 손쉽게 회사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경영자를 연계 -기업가 정신 교육 이니셔티브: 학교에서부터 창업교육을 강화 -창업 문화 및 창업대학 프로그램: 여성 창업가협회를 통해 여성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

자료: 저자 정리.

<첨부 2. 국내 사업자 현황(국세통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1) 조직 형태별 사업자 현황

	총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2001	3,709,035	1,072,489	709,580
2002	3,963,454	1,239,370	800,261
2003	3,994,665	1,006,779	857,033
2004	3,942,247	884,932	731,159
2005	4,121,612	880,716	795,755
2006	4,260,946	1,010,360	795,369
2007	4,601,534	1,135,831	894,776
2008	4,901,772	1,087,533	844,171
2009	5,036,249	1,043,533	840,941
2010	5,239,103	1,071,684	860,335
2011	5,360,511	1,083,669	897,16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각 년호.

주: 총계는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신규 및 폐업자는 신고 기준임.

2) 업종별 신규 사업자 현황

	총사업자		
		법인	개인
농림어업	7,789	2,205	5,583
광업	280	127	153
제조업	63,379	15,807	47,572
화학제품	1,872	850	1,023
정밀기계	1,336	419	917
전기전자	7,206	2,947	4,259
수송장비	3,351	1,156	2,196
전기가스수도	855	291	564
건설업	59,122	7,652	51,470
서비스업	940,179	56,166	884,013
도·소매	317,878	23,172	294,707
음식·숙박	196,720	2,914	193,806
통신업	469	128	341
금융업	10,494	2,512	7,982
부동산업	148,268	6,552	141,716
사업서비스업	57,633	12,773	44,861
교육서비스업	28,413	994	27,419
보건서비스업	10,906	822	10,084
합계	1,071,605	82,249	989,35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009~2012년.

주: 2008년부터 2011년에 등록된 신규 사업자의 평균임.

<첨부 3. 산업 분류 기준>

○ 지식집약적 산업 분류 기준

	OECD 분류	국세통계 분류
창의 및 디지털	-출판, 광고, 영향 -오락, 뉴스 활동 및 박물관 문화 활동	-광고업 및 기타산업관련 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및 수리업
고부가 제조업	-의약품, 의료 장비, 광학, 시계 -전자 기기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조립 -항공기, 자연공학 R&D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조립업 -기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ICT	-통신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작업	-통신업 -IT관련 및 연구개발업
금융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금융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	-법무 회계, 건축 서비스 -인력 고용	-법무·회계 건축 및 상담업
공공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위생관련서비스업

자료: OECD, 'Measuring skills needs in a knowledge economy: Key tools and Methods', 2008.
Eurostats의 Knowledge intensive 산업 분류를 참조

○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 기준

	기업경영분석 분류	국세통계 분류
첨단기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조립업 -기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고기술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도 및 기타운송 장비(항공기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중기술 업종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선박 및 보트건조업	-석탄·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제 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저기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류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가구 및 기타 제조 -재생재료 및 가공 처리업 -기타도급 제조업
-----------	---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국세통계'.

- 주: 1)기업경영분석에서는 의약품은 첨단산업, 화학제품은 고기술로 분류하나 국세통계는 두 산업 모두 화학물 및 화학물질 제조로 분류되는데, 의약품(전산업 대비 0.5%)이 화학제품(전산업 대비 6.8%)에서 차지하는 산출액 비중이 작아 고기술에 포함시킴.
 2)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조립업과 기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에는 고기술의 전기장비가 일부 포함되나, 컴퓨터,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어 첨단기술로 분류함.
 3)기타운송장비는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선박이 국내 산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기술 업종으로 분류함.

<참고문헌>

E.stan, D.b. Audretsch and J. Meijard, "Renascent Entrepreneurship", Erasmus Research Institute of Management, 2006

김종호 외, '규제, 기업가 정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연구보고서 제 542호, 산업연구원, 2009년 3월

이동주 외,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33권 제 2호, 통권 8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년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제 515호, 2011년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 동향', 2011년 8월.

산업연구원,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가 정신', 제 341호, 2007년 5월.

국민은행연구소, '기업가 정신과 금융의 역할', 13-008호, KB daily 지식 비타민, 2013년.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년 2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European commission, 2013년 1월.

BMW(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Gruenderland Deutschland, 2011년 2월.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현황', 2012년 12월.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결과' 보도자료, 2012년 12월.

국세청, '국세통계' 1998~2012년 각년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년 산업연관분석' 연장표.

OECD, IMF, World Bank, 미국 BDS, 통계청 통계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 5일	4월 1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71	1.79	0.08%p
	엔/달러	77.66	79.37	85.86	96.36	99.75	3.39¥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2928	1.3062	0.013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565	14,865	300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2,834	13,549	71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44	2.63	0.19%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31.8	1,129.1	-2.7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27.2	1,949.8	22.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 5일	4월 11일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2.76	93.38	0.62\$
	Dubai	104.89	92.89	107.99	104.19	103.04	-1.15\$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8.28	289.94	1.6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